

바다거북 마린의 대모험

(⑫ 뒷면)

① — (마린의 탄생)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린」이에요.

저는 망망대해를 마주보고 있는 새하얀 백사장에서
태어났어요.

한없이 푸른 바다

한없이 푸른 하늘

상쾌한 바닷바람이 불고 있어요.

해초와 물고기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해파리를
많이 먹고 컸어요.

우리 바다는 정말 깨끗하고 상쾌해요.



①

②— (만남)

여름방학이 되면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저를 만나러 와 주었어요.

우리들은 매일 매일 재밌게 놀았어요.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멋진 바다 생물들과 만날 수 있어요.

등에 올라탄 아이들은

「바다는 상쾌한 곳이구나」

라며 좋아했어요.



③— (모험의 시작)

(② 뒷면)

여름방학도 끝날 무렵이 다 되어 아이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어요.

새하얀 백사장에서 아이들을 태운 배가 조그맣게 보입니다.

배가 멀어지자 저는 아주 쓸쓸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 나도 따라가 보자 !

마린은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④ — (열심히 헤엄치기)

열심히 헤엄을 쳐 갔더니 많은 배들이 있었어요.
이게 컨테이너선이구나. 크네.
이번엔 화물선이 왔네!
굉장히 빠른 배가 왔다. 여객선이구나.
어부들의 배도 왔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야.
모두들 내 옆을 지나 앞질러 갑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별이 반짝반짝 빛나서 정말 예쁘네요.
아이들은 지금쯤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마린은 밤이 되어도 계속 열심히 헤엄을 쳤어요.



⑤— (바다가 오염되었다)

그리고 해님이 얼굴을 내밀고
아침이 왔어요.

아 보인다.

많은 집들과 공장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기가 아이들이 사는 마을이구나.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은 벌써 일어났을까.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바닷물이 더럽네요. 쓰레기들도 많이 떠다니고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⑥— (배가 고파요)

오래 헤엄을 쳤더니 배가 고파졌어요.

앗 여기에도 해파리가 있네.

그럼 먹어볼까.

덥석 물어봤지만 씹어지지가 않아요.

꿀꺽 삼켜봤지만 아무 맛이 안 나요.

마린은 이 이상한 해파리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⑦— (마린의 위기)

이제 곧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마린이 마을을 향해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는
바로 그때 !

아 배가 아파서 죽겠어요—

어떻게 된 거지.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거 같아.

아 어떡하지 !

마린이 위험해요.

바로 그때 해상보안청의

순시정이 지나갔어요.

이봐 바다거북이 좀 이상해. 괴로워 보이네.

앗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어 !



⑧— (구조되다)

해상보안관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고 근처 항구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으 너무 아파요 !
배가 아파요 !
으 괴로워요— !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아이들을 못 보게 될지도 몰라요.
주변이 희미하게만 보여요.
그리고 저는 항구 근처의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⑨— (잘못 먹었어요)

빨리 처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겠는걸.

병원 의사 선생님도 걱정스러워 보여요.

저는 바로 수술을 받았어요. 너무 아파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놀란 모습으로 제 뱃속을 들여다 보고 계세요.

제 뱃속에서는 플라스틱 봉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해파리인 줄 알고 배부르게 먹은 것은

플라스틱 봉지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였어요.

플라스틱 봉지가 뱃속에 가득 차서.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 했어요.



⑩ — (부탁)

수술이 끝나서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저는 잠시 동안 마을 수족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많은 아이들이 저를 만나러 와 줍니다.

여러분, 바다가 쓰레기와 기름으로 오염되면

헤엄칠 때 앞이 잘 안보여요.

플라스틱 봉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파리랑 아주 비슷해서

해파리인 줄 알고 먹었다가 죽을 뻔 했어요.

저 뿐 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친구들은 모두 힘들어 하고 있어요.



⑪— (바다새에 대해)

제 친구인 바다새 피코도

어느날 갑자기 날지를 못하게 되어서 괴로워 했어요.

구조를 받은 피코의 뱃속에는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전세계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도 이런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많이 먹었을지도 모른대요.

저랑 제 친구들이 아주아주 좋아하는 하얀 백사장과

깨끗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아 주세요.



⑫ — (그리고 앞으로)

그후 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수족관 아저씨랑
저를 만나러 와 준 여러분들 덕분에
제 고향 백사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죽을 뻔 했던 이 마을에서는 지금
바다와 강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이 바다를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사람 한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바다와 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마린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미래에 남기자 푸른 바다를 !」

